

清代 祁州藥市에서 활동한 商人의 類型 分析

이민호

한국한의학연구원

Analysis on the merchant types of Qizhou(祁州) Medical Herb Market in the Qing(清) Dynasty

Lee Min-Ho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his paper studied the premodern Chinese Medical Herb Market and commercial culture by analysing the structure and management of Qizhou(祁州) Medical Herb Market, the most representative herb market of the Qing(清) Dynasty.

The merchant of Qizhou(祁州) Medical Herb Market developed 'guild halls(會館)' or 'regional merchant groups(地域商幫)' and form a strong regional bond. These local merchants brought medical herbs from their hometown to Qizhou(祁州) to sell, and bought herbs that were not produced in their hometown or valuable medical herbs from Qizhou(祁州) Medical Herb Market.

Qizhou(祁州) Medical Herb Market was a space of various types of business managements. The major business of Qizhou(祁州) Medical Herb Market was herb trade but merchants of other related industries were also active. The thtive of 'Wu Da Hui(五大會)' reflects this.

Key Words : Qizhou(祁州) Medical Herb Market; regional merchant groups(地域商幫); Wu Da Hui(五大會); Medical herb trade; 'Medicine King Temple(藥王廟)'

I. 서론

藥材業은 明 中期 이래 경제성장과 건강에 대한 인식제고 및 의약지식의 보급 등의 영향으로 크게 성장했다.¹⁾ 이는 明政府가 납입징세칙례를 정할 때 중요한 상품을 크게 8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 하나로 약재류가 포함되어 있고,²⁾ 北京 등 대도시의 중요한 업종 가운데 하나로 약재업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³⁾ 清 中期的 康熙年間부터 清末·民國初까지는 전통 중국 약업의 전성기로

‘四大藥都’⁴⁾ 혹은 ‘十大藥市’⁵⁾로 불리는 專業藥市가

- 1) 이민호, 「明中期 民間 醫藥業의 成長과 ‘棄儒爲醫」, 『중국사연구』 55, 2008, 참조.
- 2) 중요 상품 8가지는 ① 紗緞布帛類, ② 皮毛毯店類, ③ 紙張類, ④ 瓷器類, ⑤ 顏料類, ⑥ 手工業 原料類, ⑦ 水果蔬菜類, ⑧ 各種藥材類이다(孫建 主編, 『北京古代經濟史』, 北京燕山出版社, 1996, p.196).
- 3) 明清代 북경의 약재업은 糧·鹽·布·棉·茶·紙·玉器·香蠟·糖·酒·裱褙·染·飲食·珠寶業과 더불어 중요한 15개 行業 가운데 하나였으며, (唐廷猷, 『中國藥業史』,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3, p.99.) 懷慶藥商의 주요 활동 무대 가운데 한 곳인 漢口에서도 ‘八大行’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었다.(王默, 尹忠華, 「漢正街的‘藥幫’與藥王廟」, 『武漢文史資料』 2007-7, p.54.)
- 4) ‘四大藥都’로는 河北 安國, 江西 樟樹, 河南 百泉과 禹州를 들 수 있다.(張瑞賢, 「中國古代醫藥諸神(7)-皮場大王」, 『光明中醫雜誌』, 1994-1.)
- 5) ‘十大藥市’는 ‘四大藥都’(河北 安國, 江西 樟樹, 河南 百泉과 禹州)에 安徽 亳州, 廣西 玉林, 西安 康復路, 廣州 清平路, 成都 荷花池, 湖南 邵東이 추가된다.(吳岩, 「安國藥王文化與藥市」, 『光彩』 1996-3, p.8.)

접수 ▶ 2012년 2월 27일 수정 ▶ 2012년 3월 20일 채택 ▶ 2012년 3월 26일
 교신저자 이민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한국한의학연구원
 Tel 042-868-9571 Fax 042-863-9463 E-mail mhlee9799@kiom.re.kr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었고, 이들 약시를 배경으로 한 약상들의 활약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비슷한 시기 조선에서도 孝宗9年(1658) 慶尙, 全羅, 江原 각 道 觀察使 소재지인 大邱, 全州, 原州에 藥市를 설치함으로써 약업이 활성화되고, 각지에서 약상들이 활약하였다.⁶⁾

청대 중국을 대표하는 약시 가운데 한 곳으로 河北省 祁州(현 河北 安國市)가 있다.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祁州는 중국에서 유명한 약재 집산지로서 ‘天下第一藥市’,⁷⁾ 혹은 ‘四大藥都之首’⁸⁾로 칭해지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약재시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清代 祁州가 약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경제 성장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대, 의학 기술의 발전 등과 더불어 祁州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인문·지리 환경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우선 최대의 소비시장인 수도 북경에서 멀지 않은 지리적 우월성을 들 수 있다. 청대 북경은 황궁과 관청이 밀집해 있었고, 동인당과 학년당 등 당대 중국을 대표하는 거대한 제약업체가 자리하고 있어서 약재 수요가 많았는데 대부분이 기주약시에서 조달되었다.

祁州는 대운하에 직접 연해 있지는 않았지만 수로를 통해 대운하와 연결되고 화북평원 중부의 南北驛道 상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다.⁹⁾ 도시를 동서로 가로질러 唐·沙·滋河의 세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이들은 滹沱河로 이어지는데, 계속된 대청하를 통해 대운하와도 연결되고 이어서 海河를 이용하면 天津까지 도달된다. 또한 祁州 남쪽의 深澤縣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滹沱河를 이용할 경우 역시 대운하와 직결된다.¹⁰⁾ 이처럼 잘 발달된

수로는 祁州가 전국적인 규모의 약시로 성장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밖에 기주약시 주변에서 다양한 약재가 생산되었다는 점¹¹⁾과 기주 남관 지역에 가면 병을 치료하는 신령한 기운이 존재하며, 그를 기리기 위한 ‘약왕묘’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도 이곳을 중국 최대의 약재시장으로 이끈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¹²⁾

총래 중국 전통시대를 대표하는 전업 약시였던 기주 약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약시 성장의 역사적 전개과정이나 ‘약왕묘’와 관련하여 진행되어 왔다.¹³⁾ 하지만 약시에서의 활동의 주체인 상인의 성격을 파악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고는 기주약시를 이끌어간 상인들의 형태를 유형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기주약시의 대표적인 상업행위 담당자인 각 지역 상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3방’으로 대표되는 기주약시에서 활동했던 주요 상방의 형성과정 및 각 상방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조선 출신 약상들이 기주에서 활동했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기주약시에서 활동한 다양한 유형의 상인들의 활동 양상을 분석하는데 拆貨棚과 片子棚을 비롯해 熟藥行, 販運商, 批發商과 零售商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기주약시에서 약상과 더불어 활동했던 기타 업종의 시장으로 ‘五大會’를 분석하고자 한다. 청대 기주약시에서 활동했던 상인의 유형을 분석하는 작업은 전통 시대 중국의 약시 및 약상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 한국의 약령시에 관해서는 權丙卓, 『正統大邱藥令市』, 聖岩出版社, 1992; 朴敬庸, 「傳統醫藥의 ‘業權’ 樣相과 物質傳承-大邱藥令市를 中心으로」, 忠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人文學研究』, 2007; 申東源, 「1910年代 日帝의 保健醫療政策-韓醫藥政策을 中心으로」, 『韓國文化』30, 2002; 藥令市復活推進委員會, 『大邱藥令市』, 慶北印刷所, 1984;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自家出版, 1963 등 참조
7) 吳岩, 「安國藥王文化與藥市」, 『光彩』1996-3, p.8.
8) 張瑞賢, 「中國古代醫藥諸神(7)-皮場大王」, 『光明中醫雜誌』, 1994-1.
9) 祁州는 保定府 남쪽120리 지점에 위치하여, 東으로는 河間府에서 170리, 南으로 眞定府 晉州에서 130리, 西로는 眞定府 定州에서 120리 떨어져 있었다.((清)宋蔭桐 纂修, 『安國縣新志稿(一)』(清光緒32年手抄本, 民國年間補抄稿本), 成文出版社, 「輿圖第一」, “疆輿全圖”)
10) 祁州 지역의 수로 교통과 관련해서는 (清)宋蔭桐 纂修, 『安國縣新志稿(一)』(清光緒32年手抄本, 民國年間補抄稿本), 成文

出版社, 「河渠第五」, pp.141-192 참조,
11) 『祁州志』에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류로 枸杞·牽牛·紫蘇·菟絲子·瞿麥·麥門冬·桑白皮·益母·茵陳·稀莩·地骨皮·小茴香·薏苡仁·薄荷·茯苓·車前子·酸棗仁·杏仁·菖蒲·地黃·槐角子·蒼耳·百合·艾·赤芍藥·白芍藥·金銀花를 들고 있다. (郭應響, 『(崇禎)祁州志』卷1, 「輿地志」, “土產”.)
12) 이민호, 안상우, 「明·清代 祁州藥市の 成長과 ‘藥王廟」」, 『대한본초학회지』24(4), 2009, pp.31-37.
13) 이민호, 안상우, 「明·清代 祁州藥市の 成長과 ‘藥王廟」」, 『대한본초학회지』24(4), 2009; 唐廷猷, 『中國藥業史』,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3; 吳岩, 「安國藥王文化與藥市」, 『光彩』1996-3; 張瑞賢, 「中國古代醫藥諸神(7)-皮場大王」, 『光明中醫雜誌』, 1994-1; 楊二蘭, 「祁州藥市的歷史考察」, 蘇州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등 참조.

II. 祁州藥市の 地域商幫

1. 地域商幫의 형성과정

전통적으로 지역 연고의식이 강했던 전통시대 중국 사회에서는 동향 출신을 중심으로 상방을 만들어 활동하는 예가 많았다. 明·清代 祁州 등 專業藥市도 예외는 아니어서 동향 사람끼리 會館을 설치하거나 藥幫을 결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방을 대표하는 幫首, 혹은 會首는 추천을 통해 선발하거나 교대로 담임하기도 하였지만 대개 저명한 업주가 담당하였다.

기주약사에서 활동했던 방회의 성격에 대해 王方中, 凌耀는 『河北安國縣藥業歷史調查報告』(1959)에서 다음과 밝히고 있다.

幫會에는 명확한 조직 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다만 會首가 있을 뿐이었다. 會首는 추천하여 선발하였고, 교대로 담당하였다. 몇몇 幫의 경우 幫辦(조수, 보좌관)을 두고 廟會 시기가 되면 4일간 희극 공연을 하였는데, 필요한 경비는 회수가 각 상호의 자금 상황을 고려하여 부담토록 하였다. 幫의 역할은 대외적인 측면이 강하였는데, 예를 들면 幫 내 상인과 다른 幫에 속한 상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幫 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 도와주는 것이다. 자금을 모아 공연하는 것도 外幫 및 고객을 상대로 재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들 상업자본가가 조성한 幫과 중세 도시 수공업자가 결성한 길드의 차이점은 幫 내부의 구속력에 제한이 있었다는 점이다. 幫 내부 상호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會首는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약재의 가격이나 이윤 책정 등은 전적으로 개별 상호가 자주적으로 결정하였다.¹⁴⁾

중국의 專業藥市에서 幫의 결성은 기주약사에서 가장 먼저 출현했는데¹⁵⁾ 청 중엽부터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각 상방의 설립 경과를 보면 乾隆年間(1735-1796) 北京·通州 지역의 藥商이 京通行을 조직하였고, 山東 藥商이 山東行을 조직하여 교역에 참가하였다.¹⁶⁾ 기주 약왕묘에 乾隆56年(1791) 건립된 『重修藥王

廟碑記』에는 乾隆44年(1779) 懷慶河內縣(현재의 하남성 沁陽) 상인들이 자금을 모아 ‘약왕묘’를 수리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비문에 기재된 것을 보면 당시 ‘懷幫’¹⁷⁾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지만 공동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嘉慶年間(1796-1820) 세워진 비문에는 ‘山西幫’과 북경, 통주 약상들이 조직한 ‘京通行’, 산동 약상들이 조직한 ‘山東廠’, 전업 약재를 취급하는 ‘黃芪行’, ‘甘草廠’ 등이 보인다. 이로 보던데 방의 전신은 ‘行’과 ‘廠’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古北口幫’은 이 시기에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에 비문에는 단지 ‘古北口衆商’으로 칭해지고 있고, 기주 본지의 약상들도 ‘南藥街衆商’, ‘華邑街衆商’이라 했다.¹⁸⁾

道光9年(1829)에는 각지의 藥商들이 자금을 모아 藥王廟 앞에 두 개의 鐵杆을 주조하였는데 아래쪽에 자금을 출연한 關東幫, 陝西幫, 山西幫, 山東幫, 黃芪幫, 京通衛幫, 古北口幫 7개의 약방 조직이 거론되고 있다. ‘황기방’은 기주 본지 상인들이 조직하였는데, 약방들 가운데 유일하게 약재명칭을 따서 명명한 약방으로 이들은 황기를 전문으로 취급하였다.¹⁹⁾

기주약사에서 ‘13幫’이 정식으로 성립된 것은 同治4年(1865)이다. 즉 『河南彰德府武安縣合幫新立碑』에 “지역 별로 幫을 만드니 13幫이 있으나, 하남 창덕부의 武安幫만이 홀로 빠져 있다.”²⁰⁾고 하였다. 비문은 ‘武安幫’²¹⁾의

17) 이민호, 「清代 ‘懷慶藥商’의 상업활동과 네트워크 형성-‘協盛全’과 ‘杜盛興’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35:2011 王婧, 「清代中後期懷慶藥商의地域經營」, 『株州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12(6), 2007; 程峰, 「明清時期懷慶商崛起的的原因」, 『南都學壇』(人文社會科學學報) 27(4), 2007; 崔來廷, 「略論明清時期的河南懷慶商人及貿易網絡」, 『河南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7(3), 2006 등 참조.

18) 趙英, 李文策, 朱孟申 主編, 『安國中醫藥志』, 香港銀河出版社, 2002, p.87.

19) 『同治十二年至光緒五年(1873-1879)衆商義捐布施碑記』에 의하면 光緒2年(1876) ‘黃芪幫’에는 德興永, 德和公, 萬和永, 根深茂, 德盛堂, 永和泰, 廣慶堂, 德慶源, 德成公, 復成堂, 居仁堂, 三元堂, 四美堂, 通生慶, 同興茂, 三合堂, 三益公, 三義堂, 九德堂, 三合義, 雙盛公, 常在堂, 三德常, 興盛店, 趙洛魁, 左殿, 劉樹清, 焦柏銀, 李老邁, 王萬三, 同起富 등 32家の 藥行 商戶가 있었다.

20) 『河南彰德府武安縣合幫新立碑』: “凡客商載貨來售者, 各分以省, 省自爲幫, 各省共得十三幫, 而河南彰德府之武安幫獨闕”(趙英, 李文策, 朱孟申 主編, 『安國中醫藥志』, 香港銀河出版社, 2002, p.37.)

21) 安秋生, 「武安藥商散記」, 『長城』2007年 第3期; 程峰, 楊玉東, 「懷慶商幫與武安商幫的商幫意識」, 『焦作大學學報』2011年 第2期; 武立新, 「武安藥商文化在現代醫藥企業經營中的利用探索」, 『商業文化』2010年 第7期 등 참조.

14) 趙英, 李文策, 朱孟申 主編, 『安國中醫藥志』, 香港銀河出版社, 2002, p.89.

15) 唐廷猷, 『中國藥業史』,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3, p.251.

16) 상동

성립과정과 同治4年 이전에 이미 형성된 關東幫, 陝西幫, 山西幫, 山東幫, 京通衛幫, 古北口幫, 西北口幫, 懷幫, 亳州幫, 寧波幫, 江西幫, 川幫, 黃芪幫의 13幫²²⁾ 외에 武安幫이 새롭게 성립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후 약방의 수는 더욱 증가하여 청말에는 ‘17幫’이 되었지만 명칭만큼은 계속해서 ‘13幫’이라 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 점은 비슷한 시기 하남 우주약사에서 활동했던 지역상방 조직도 ‘13幫’이라 하였으며, 그 증거로 ‘13幫會館’이 설립되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상 ‘13방’의 기주약사에서 영향력은 절대적인 것으로 예를 들면 7.7사변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전체 교역액 5,000만원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3,200만원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²³⁾

2. 祁州藥市の 주요 商幫

① 關東幫 : 東北 및 朝鮮의 약상으로 적어도 400-500호에 달했는데, 저명한 것으로 世益堂, 寶和, 萬玉, 永德號 등이 있었다. 주요 취급 품목으로는 人蔘, 黃芪, 虎骨, 黃柏, 木通, 細辛, 膽草, 木賊, 黨蔘, 防風, 五味子, 鹿茸 등 關外 藥材로 수량이 매우 많았다. 이들 약재를 판매한 후 주로 남방의 약재인 川貝, 川芎, 白朮, 浙貝, 赤芍, 元胡, 桂皮 등을 매입하였다. 平漢鐵路(北平-漢口)가 건설되기 이전 廟會에 참가하기 위해 동원된 鏢車²⁴⁾, 수레의 왕래가 끊이지 않아 祁州藥市에서는 이들을 ‘關東大軍’²⁵⁾이라 칭하였다. 조선 상인

들도 關東幫의 일원으로 人蔘을 매개로 활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청대의 또 다른 전업약사이면서 祁州와 더불어 ‘北祁州 南禹州’로 칭해졌던 우주약사에서 그들이 활약했던 상황과 관련하여(民國『禹縣志』에 “22개 省은 물론이고 西洋·南洋, 高麗(朝鮮) 등 해외 藥商들도 참가했다”²⁶⁾는 기사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② 古北口幫 : 古北口(北京 密雲 동북)와 熱河(承德), 八溝(平泉) 일대의 약상으로 집산지는 承德, 營口이다. 저명한 상호로는 長春堂, 廣德堂, 錦泰堂, 福元堂, 增壽堂 등이 있다. 廟會 기간 중에 기주에서 활동한 것은 130호 정도였다. 黃芪, 防風, 知母, 柴胡, 肉蓯蓉, 甘草, 赤芍, 鹿茸, 豬苓, 桔梗 등을 판매하였고, 甲片, 靑木香, 人蔘, 細辛 등을 구입하였다.

③ 西北口幫 : 呼和浩特, 包頭, 張家口 일대의 약상으로 집산지는 包頭이다. 저명한 상호로는 中和李, 春和裕, 永和正, 太和堂, 頤壽堂 등이 있었다. 廟會 기간 중에 기주에서 활동한 것은 30호 정도였다. 이들은 庫倫 黃芪, 涼州 大黃, 防風, 羚羊角, 麝香 등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고, 구입한 것은 고북구방과 거의 동일하였다.

④ 京通衛幫 : 北京, 通州, 天津 일대의 약상을 지칭한다. 한 때 寧波幫이 京幫에 부속되었던 적도 있었다. 廟會 때 기주에 왔던 상호는 310호 정도 되었다. 유명한 것으로 北京의 同仁堂, 千芝堂, 同濟堂, 協盛仁, 慶仁堂, 永盛合, 天津의 隆順裕, 聚興合, 松茂堂, 萬年青, 乾坤一堂, 衛生堂, 寶心堂, 萬全堂, 瑞芝堂, 通州的 寶興公 등이 있었다.

북경에서 들여온 상품은 주로 同仁堂, 同濟堂의 丸·散·膏·丹이 주를 이루었다. 이들이 매입한 것으로는 牛黃, 麝香, 人蔘 등과 當歸, 大黃, 木香, 砂仁, 黨蔘 등이 있었다. 天津에서 온 상품으로는 川芎, 檳榔, 洋紅花 및 홍콩으로부터 들여온 廣貨, 예를 들면 木香, 犀角, 丁香, 山甲 등이 있었다. 이들이 매입한 것으로는 甘草, 赤芍, 大黃, 大靑葉, 龍甲, 知母, 紫菀, 黃芪, 桃仁 등이 있다. 청말 이들 상품의 대부분은 천진을 경유하여 홍콩에서 판매되었다. 通州幫은 비교적 적어 몇 호의

22) 祁州藥市를 배경으로 활동한 13방에 대해서는 이설도 존재한다. 喬冀民은 關東幫, 京通衛幫, 古北口幫, 陝西幫, 山西幫, 彰武幫, 懷幫, 山東幫, 浙寧幫, 禹州幫, 亳州幫, 江西幫, 廣幫이라 했고,(喬冀民, 『安國縣藥材集散市場歷史情況的調查研究』, 『中藥通報』 1958年 第6期, p.183.) 『當代中國的醫藥事業』에는 關東幫, 京通幫, 古北口幫, 西北口幫, 陝西幫, 山西幫, 懷幫, 彰武幫, 山東幫, 寧波幫, 川幫, 江西幫, 亳州幫으로 되어 있다.(唐廷猷 『中國藥業史』,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3, pp.251-252.)

23) 劉岩, 『安國藥材產業發展的經濟文化基礎』, 『地理研究』, 17(3), 1998, p.306.

24) 여객 또는 화물의 안전을 위해 주로 산동 사람에 의해 경영되었던 일종의 운송업으로 각지의 강도와 내통하여 매년 금품을 제공하여 안전을 도모하고 鏢客, 鏢師를 고용하여 호송 임무를 맡겼는데 이를 鏢局이라 한다. 이 때 운송업에 사용되었던 수레나 배를 鏢車, 혹은 鏢船이라 했다.

25) 唐廷猷 『中國藥業史』,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3, p.252; 趙英, 李文策, 朱孟申 主編 『安國中醫藥志』, 香港銀河出版社, 2002, p.88.

26) 車雲, (民國『禹縣志』, 卷7「物產志」.

成藥舖가 있었을 뿐으로 가져온 약은 매우 적었고, 묘회 기간 동안에는 주로 생약을 구입하였다.

⑤ 祁州幫(黃芪幫) : 祁州 본지의 약상으로 약 300여 호가 있었으며, 저명한 상호로는 人和堂, 新德昌, 太和春, 敦生堂, 永和堂, 西天錫, 德興安, 德和公, 三合堂, 通生堂, 三盛德 등이 있었다. 이들은 약재집산지의 장점을 살려 각지에 대규모로 약재를 판매하였다.

⑥ 山西幫 : 陝西一部 지역을 포함한 산서의 약상으로 山西幫 중 廣藥을 판매하는 상인은 廣幫으로 불린다. 廟會 기간 중에 기주에 오는 것은 240호 정도이다. 太谷과 西安이 집산지로 저명한 상호로는 永春遠, 廣茂遠, 廣財遠, 聚升慶, 永和堂 등이 있었다. 이들은 遠志, 羚羊角, 枸杞, 紫草, 西貝母, 肉蓯蓉, 小茴香 등을 판매하고 人蔘, 山查, 川黃連, 木香 등을 구입하였다. 平遙縣 출신 약상들도 묘회 기간 중에 직접 기주에 와서 거래하였는데 대표적인 상호로는 延壽堂, 道生明, 雲錦成, 瑞生祥, 生茂昌 등이 있었다.²⁷⁾

⑦ 陝西幫 : 陝西, 甘肅, 寧夏 일대의 약상으로 집산지는 西安, 漢中이다. 저명한 상호로는 永隆全, 福壽昌 등이 있고, 묘회 기간 동안 10여호가 활동하였으며, 장기간 거주한 것도 3-4호 되었다. 當歸, 寧大黃, 枸杞, 羌活, 羚羊角, 西麝香 등을 판매하고, 關東人蔘, 細辛, 廣犀角, 木香, 砂仁, 山甲 등을 구입하였다.

⑧ 山東幫 : 산동 일대의 약상으로 廟會 기간 중에 활동하였던 것은 약 120호 정도이다. 濟南이 집산지로 저명한 상호로는 德成公, 益利公, 德興堂, 公順成, 金成利, 萬盛公, 美成公, 恒興堂, 六合泰, 廣德堂, 源隆號, 天成德, 福成德 등이 있다. 이들이 들여온 상품으로는 全蝎, 阿膠, 銀花, 清半夏 등이 있었고, 甘草, 黃芪片, 五味子, 知母, 黃芪 등을 매입하였다.

⑨ 懷幫 : 河南 懷慶, 沁陽 일대의 약상으로 懷慶, 鄭州가 집산지이다. 저명한 상호로는 杜盛興, 水盛魁, 永泰恒, 永興德 등이 있었고, 묘회 기간 중에는 80여

호가 활동하였으며, 10여 호가 상주하였다. 懷山藥, 懷牛膝, 懷菊花, 懷地黃(이상 4大懷藥), 麝香, 朱砂 등을 판매하고, 人蔘, 黃芪 및 기타 북방 약재를 구입하였다. 회방은 기주약시의 약왕묘 수리에 많은 공헌을 하였는데, 예를 들면 『同治12年春會至光緒5年冬會客幫銀錢捐項碑記』에 의하면 당시 약왕묘 수리에 회방 51가의 상호에서 자본을 출연했으며, 특히 두성흥은 가장 많은 77량을 기부하기도 했다.²⁸⁾

⑩ 彰武幫 : 河南 彰德(安陽), 武安 일대의 약상들이 조직한 것으로 彰德이 집산지이다. 저명한 상호로는 大有恒, 雙和義, 積盛合, 德義沛, 義盛德, 德聚盛 등이 있다. 묘회 기간 동안 190여 호가 기주에서 활동하였다. 菖蒲, 白芷, 紅花, 桃仁, 杏仁, 瓜蔓, 香附, 黨參, 連翹, 麝香을 판매하고, 檳榔片, 廣角, 木香, 枳實 등을 구입하였다.

⑪ 禹州幫 : 河南 禹州 일대의 약상으로 저명한 상호로는 新福興藥庄이 있으며, 기주에 10여 호가 상주했다. 禹州幫은 四川, 雲南, 貴州의 약재를 漢口 혹은 禹州를 거쳐 기주로 운반하여 판매하고 기주에서 구입한 약재를 다시 판매하였다. 禹白附, 會全蝎, 密銀花, 當歸, 大黃, 川芎, 黃連 등을 판매하고, 관동과 북방의 상품을 구입하였다.

⑫ 寧波幫 : 浙江 寧波 일대의 약상으로 집산지는 寧波, 上海이다. 저명한 상호로는 昌記號, 亨吉泰, 鼎亨號, 和泰號, 源潤號 등이 있다. 廟會 기간 동안 160호가 기주에서 활동하였고, 6-7호가 상주해 있었다. ‘浙八味’(浙貝母, 浙麥冬, 浙玄參, 浙玄胡, 浙棗皮, 杭白朮, 杭白芍, 杭菊花), 梔子, 二紅皮을 판매하고, 黃芪, 大薑, 枸杞, 冬花, 銀花 등을 구입하였다. 寧波幫은 주로 南藥을 北藥과 교환하고 대량의 수출입 업무를 수행하면서 홍콩, 일본, 동남아 등지와 교역하였다.

⑬ 亳州幫 : 安徽 亳州 일대의 약상으로 저명한 상호로는 東慶恒, 魁興長 등이 있다. 묘회 기간 중에는 90여 호가 활동하였고, 14호가 상주해 있었다. 亳菊, 亳芍, 亳故子,

27) 劉崇生, 「平遙縣中藥材經營史話」, 『山西文史』1995年 第2期, p.154.

28) 王興亞, 「清代懷慶商人的經營之道」, 『石家莊學院學報』2006年 第1期, p.243.

瓜蒌, 白芥子 등을 판매하고 동북 및 산동의 상품을 구입하였다.

⑭ 江西幫(樟幫) : 江西(清江縣 一帶 藥商 위주) 약상으로 묘회 기간 동안 기주에서는 20여 호가 활동하고, 4-5호가 상주했다. 저명한 상호로는 聶振茂, 志誠信, 德厚昌, 恒義泰, 濟春堂, 榮茂號 등이 있다. 澤瀉, 朱砂, 黃連, 川羌, 陳皮, 枳實, 枳殼, 半夏 등을 판매하고, 동북, 산동의 상품을 구입하였다.²⁹⁾

⑮ 漢口幫 : 한구를 비롯한 호북 지역의 약상으로 茯苓, 豬苓, 桔梗, 蓮子, 龜板, 鱉甲, 蜈蚣 등을 취급했다. 한구를 집산지로 삼으며, 주로 양자강과 한강, 및 대운하 등 주로 수로교통을 이용해 기주약시와 교류했다.

⑯ 川幫 : 四川省 약상으로 成都가 집산지이며, 저명한 상호로는 五洲藥庄이 있었다. 川麥冬, 川黃蓮, 川貝母,

川枳殼, 川枳實, 川佛手, 川陳皮, 川大黃, 川丹參, 川芎, 附子, 虫草, 麝香, 天麻, 梔子, 杜仲, 厚朴, 黃柏, 三七, 吳茱萸, 朱砂, 雄黃을 판매하고 菊花, 白芷, 細辛, 膽草, 黨參 등을 구입하였다.

⑰ 廣幫 : 廣東, 廣西, 南洋 일대의 약상으로 집산지는 廣州, 홍콩이다. 명칭은 廣幫이지만 대부분의 약상은 山西人이었다. 묘회 기간 동안 30여 호가 참가하였고, 10여 호가 상주하였다. 저명한 상호로는 廣全聚, 廣升遠 등이 있었다. 清末 廣幫이 운반 · 판매했던 약재의 대다수는 수입한 것으로 예를 들면 유럽의 龍涎香, 아프리카의 犀牛角, 미국의 花旗參, 일본의 西藥, 인도의 木香, 乳香, 沒藥, 월남의 砂仁, 豆蔻, 肉桂 등이 있다.

이상 청대 기주약시에서 활동했던 주요 약방의 주된 특징을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明 · 清代의 기주약시의 주요 藥幫)

구분	명칭	지역	집산지	주요 취급 품목
1	關東幫	遼寧, 吉林, 黑龍江	營口	人參, 黃芪, 虎骨, 木通, 膽草, 木賊, 防風, 五味子, 鹿茸 등 關外 藥材
2	古北口幫	古北口(北京 密雲 동북)와 熱河(承德)	承德, 營口	黃芪, 防風, 知母, 柴胡, 肉蓯蓉, 甘草, 赤芍, 鹿茸
3	西北口幫	呼和浩特, 包頭, 張家口	包頭	甘草, 黃芪, 赤芍, 肉蓯蓉, 當歸, 大黃
4	京通衛幫	北京, 通州, 天津	北京, 祁州	北京 同仁堂 中成藥, 黃芪, 穿山甲, 紫礬砂, 수입 鹿茸, 藏紅花, 洋枳枝, 洋枳實, 洋枳
5	祁州幫	河北 祁州 一帶	祁州藥市	薏苡仁, 薄荷, 黃芪, 祁白芷, 板藍根, 草決明, 牛膝
6	山西幫	山西, 陝西一部	太谷	黃芪, 黨參, 甘草, 菖蒲, 連翹, 秦艽, 款冬花, 遠志, 羚羊角, 枸杞, 紫草, 西貝母, 肉蓯蓉, 小茴香
7	陝西幫	陝西, 甘肅, 寧夏	西安, 漢中	當歸, 枸杞, 羌活, 大黃, 羚羊角, 麝香, 鹿茸
8	山東幫	山東	濟南	全蝎, 阿膠, 銀花, 瓜蒌, 柏子仁, 曹州丹皮
9	懷幫	河南 懷慶, 沁陽	懷慶, 鄭州	懷山藥, 懷牛膝, 懷菊花, 懷地黃(이상 4대 懷藥), 麝香, 朱砂
10	彰武幫	河南 彰德(安陽), 武安	彰德	紅花, 瓜蒌, 香附, 白芷, 菖蒲, 黨參, 連翹, 麝香
11	禹州幫	河南 禹州	禹州	禹白附, 會全蝎, 密銀花
12	寧波幫	浙江, 江蘇	寧波, 上海	'浙八味'(浙貝母, 浙麥冬, 浙玄參, 浙玄胡, 浙秦皮, 杭白朮, 杭白芍, 杭菊花), 梔子, 二紅皮
13	亳州幫	亳州 및 安徽 기타 지역	亳州	亳菊, 亳芍, 瓜蒌, 白芥子
14	江西幫(樟幫)	江西(清江縣 一帶 藥商 위주)	樟樹	枳實, 枳殼, 半夏
15	漢口幫	漢口 및 湖北 기타 지역	漢口	茯苓, 豬苓, 桔梗, 蓮子, 龜板, 鱉甲, 蜈蚣
16	川幫	四川, 雲南, 貴州	成都, 重慶, 昆明, 大理, 貴陽, 遵義	川麥冬, 川黃蓮, 川貝母, 川枳殼, 川枳實, 川佛手, 川陳皮, 川大黃, 川丹參, 川芎, 附子, 虫草, 麝香, 天麻, 梔子, 杜仲, 厚朴, 黃柏, 三七, 吳茱萸, 朱砂, 雄黃
17	廣幫	廣東, 廣西	廣州, 홍콩	中成藥, 廣藿香, 石斛, 田七, 蛤蚧, 收入南藥

29) 이민호, 「明 · 清代 樟樹藥幫의 形成과 그 特徵」, 『한국한의학 연구원논문집』15(2), 2009, pp.79-84; 曹萍外, 「江西建昌藥幫의 歷史考證」, 『江西中醫學院學報』14(2), 2002; 龔千峰, 祝娟, 周道根, 「樟樹藥幫의 歷史與特色」, 『江西中醫學院學報』19(4), 2007 등 참조.

Ⅲ. 經營形態에 따른 藥商의 分類

1. 拆貨棚과 片子棚

拆貨棚은 최초로 시장에서 천막을 치고 경영한데서 그 명칭이 유래하여 계속 사용되었다. 拆貨棚은 개별 상품이나 절편을 幫商과 藥鋪 사이의 중간에서 환절하였다. 拆貨棚의 경영자는 대부분 기주 지역 출신자이며, 도매 형식으로 방상에게서 생약을 사서 절편하거나 음편으로 가공하여 다시 藥鋪에 도·소매로 판매하였다.

光緒26年(1900) 이후 拆貨棚은 각지에 인원을 파견하여 약재 구입과 판로 확대를 도모하였는데, 이를 ‘下路라 한다. 拆貨棚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下路人’은 약재행의 상황과 각 지역 약포에서 필요로 하는 약재 품종과 수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일부 상호는 ‘斂單送貨’의 방법을 실행하였는데, 이는 먼저 각 지의 약포에 도착한 ‘下路人’에게 필요한 약재의 품종, 수량, 규격을 단자 위에 적어주면 후에 이를 포장하여 보내주는 것이다. 청말 약사에서 拆貨棚을 경영한 상호가 약 450가에 달했으며, 자금은 많은 경우 10만원 이상, 중등호는 5만원 적어도 만원 정도로 평균 3.5만원, 계 1,500만원 이상이였다.³⁰⁾

片子棚은 廟會가 개최되는 시기에 임시로 천막을 치고 절편·가공했던 것에서 유래했다. 경영자는 대부분이 현성 부근의 농민으로 규모 또한 매우 적었다. 한사람이 직접 운영하거나 몇 사람을 고용하여 藥刀 몇 자루를 갖춰놓고 모여 함께 영업했다. 그들은 중개인을 통하거나 직접 拆貨棚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포제나 절편한 이후 소매업자나 약포에게 판매하거나, 가공비를 받고 拆貨棚 대신 가공해주는 일을 하였다.

2. 熟藥行 및 中成藥店

熟藥行은 약재를 포제 가공하거나 약을 직접 제조하는 상호를 말한다. 기주에서 약을 제조하기 시작한 것은 명대부터였다. 熟藥行은 대부분 앞쪽에 점포가 있고,

뒤쪽에 공장을 두고 있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약을 판매하면서 의사를 초빙하여 환자를 진단 치료하기도 했다. 熟藥이란 약을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熟藥을 경영하는 자는 전문적으로 古方에 입각하여 약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방대로 약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면 同德堂의 膏藥, 永春堂의 眼藥, 厚德堂의 花柳藥 등이 있었다. 淸初에는 이미 丸·散·膏·丹 제품이 500여종에 달했다. 藥物配劑와 조작기술, 보관, 금기 등 방면의 경험이 풍부해지고, 상품의 질도 좋아짐에 따라 환자와 상인들의 환영을 받았고, ‘祔’자가 붙은 조제약이 중국 국내는 물론이고 멀리는 홍콩과 동남아 지역까지 판매되었다.

약재가공업의 발전은 곧 제약회사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동인당을 비롯한 대규모의 제약회사는 적극적으로 기주 약사와 관계를 가지고 활동하였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약재교역회에 직접 참가하여 대량으로 약재를 거래한다. 예를 들면 山東 黃縣 登仁壽 藥局은 생약을 위주로 경영하였는데, 기주에서 약재를 구입하여 가공·포제한 후 다시 대·소 약포에 판매했다. 매년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열리는 약왕묘회에 직접 사람을 파견하여 구매토록 하였다.

둘째, 분장 혹은 분점을 개설하고 점원을 파견하여 장기간 기주에 머물게 하여 가장 질 좋은 약재를 구매하고, 본점에서의 수요에 응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山西 曲沃 乾育昶藥店, 廣升聚 등이 대표적이다.

셋째 牙行³¹⁾에게 위탁하여 적시에 구매한다. 대약점은 당지에 모두 고정의 아행을 두었는데, 이들은 위탁자의 의지에 따라 적시에 시장 상황을 보고하고 아울러 대신 감별하고 구매토록 하였다. 심지어 어떤 약점에서는 묘회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 필요한 약재의 수량 등을 아행에게 알려주고 대신 구매토록 한 경우도 있었다.³²⁾

북경 중약업의 4대가로 불리는 同仁堂, 鶴年堂, 慶仁堂, 千芝堂도 기주약사에서 약재를 구입하였다. 중국

30) 趙英, 李文策, 朱孟申 主編, 『安國中醫藥志』, 香港銀河出版社, 2002, p.90.

31) 牙行은 牙人, 牙儉, 駟儉, 經紀, 行家, 行機, 九八行 등으로도 칭해진다.(山根幸夫, 『明清華北定期市の研究』, 汲古書院, 1995, p.55.)

32) 楊二蘭, 『祔州藥市的歷史考察』, 蘇州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p.21.

중의약 업계를 대표하는 동인당은 康熙8年(1669) 건립된 이래 1723년부터 청 궁정에 약을 제공하였는데 약재를 기주약시로부터 구입하였기 때문에 기주약시의 명성도 함께 상승하였다.³³⁾ 동인당과 기주약시의 긴밀한 관계는 청초부터 민국시기까지 지속되었는데, 특히 기주 약왕묘를 중수할 때에 동인당에서도 출자했다.³⁴⁾

민간에서 “丸·散·膏·丹이 필요하면 동인당을 찾고, 湯劑散片이 필요하면 학년당으로 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탕제음편으로 유명했던 학년당에서도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기주에 사람을 파견하여 좋은 약재를 구입하였다.³⁵⁾ 학년당은 前店後房의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制藥店, 頭房, 刀房, 西料室 등이 있었다.

기주 본지의 약상들도 약재 구입의 편의성을 무기로 점포를 열었는데, 그들은 진료를 담당할 의사와 제약공을 고용하여 자신들이 제조한 약을 브랜드화하여 시장에 판매했다.³⁶⁾ 명 가정년간(1522-1567)의 呂學嚴은 三槐堂을 개설하여 중성약 제조를 위주로 약포를 열고 의사와 제약공을 두고 영업하였는데, 그가 연구 개발한 ‘地榆槐角丸’은 痔漏와 便血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 呂學嚴의 사후에도 三槐堂의 명성은 계속되어 1938년 일본 제국주의가 기주를 점령하고 영업을 정지시킬 때까지 10여세대에 걸쳐 이어졌다. 그밖에 明 萬曆年間(1573-1620)에 張某氏가 개설한 體延堂과 淸 乾隆年間(1736-1795)의 瑞生堂 등도 크게 활약하였다.

3. 販運商, 批發商 및 零售商

販運商은 약재 산지에서 직접 구매하여 운반한 객상을 칭한다. 운반한 약재는 국내외 약재가 모두 포함되는데, 거기에는 생약은 물론 속약도 있다. 이들은 정보가 빠르고 각 지역 시장의 수요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산과 공급 판매를 연계하여 영업하였다. 민국 시기 기주 지역에서 판운에 종사했던 상호는 거의 100여 가에 달했다.³⁷⁾

批發商은 일괄 구매와 판매하는 도매약상으로 상품은 販運商과 幫商에게서 구입하거나 직접 산지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비발상의 영업은 큰 모험이 따르는 것으로 시장상황을 보고 앞으로 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을 집중적으로 구입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상품을 ‘壓貨’라 칭하였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큰 손해를 입기도 하였다. 예를 청말 博野縣의 李某 상인은 100만원의 자금으로 기주약시에서 황기를 매점매석한 이후 판매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는데 시장에 황기가 점차 많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져 결국 파산하였다고 한다.

零售商은 직접 객상을 상대로 장사하는 소매 약상을 말한다. 상품은 주로 批發商이나 幫商, 혹은 販運商으로부터 공급받았다.

IV. 祁州藥市の ‘五大會’

기주약시는 약재교역이 중심이었지만 다른 업종의 상업 교류도 포함하고 있다.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좋은 시장 환경을 이용하여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다른 업종도 빠르게 발전하여 서로 다른 업종에 근거한 ‘五大會’가 형성되었다. 五大會는 본지 약상과 외지의 기타 업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규모나 자금 면에서 13방에 비해 크지 않았으나 그들 역시 기주약시의 번영에 운할유 역할을 하였다.

五大會는 다음 몇 가지 업종을 포함한다.³⁸⁾

① 南大會 : 南藥市(小藥市)를 지칭하며, 약재 경영이 중심이 되고, 아울러 대량의 남화를 취급하는 상호가 영업했다. 자금과 취급하는 화물량이 비교적 큰 상호로는 亨吉泰, 萬盛魁, 榮慶和, 慶泰昌, 同德裕, 集衆堂, 廣生和, 同發昌, 福合興 등이 있다.

33) 陳新謙, 「阿片戰爭以前的藥店和藥市」, 『藥學通報』1987-3, p.166.

34) 楊二蘭, 「祁州藥市的歷史考察」, 蘇州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p.22.

35) 安冠英, 韓淑芳, 潘惜生, 『近代中國工商經濟叢書-中華百年老藥舖』, 中國文史出版社, 1993, p.3.

36) 楊二蘭, 「祁州藥市的歷史考察」, 蘇州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p.24.

37) 趙英, 李文策, 朱孟申 主編, 『安國中醫藥志』, 香港銀河出版社,

2002, p.91.

38) 安慶昌, 「安客堂和十三幫五大會」, 『安國文史資料』1988, pp.72-73; 劉華圃, 許子素, 「祁州廟會-馳名全國的藥材集散地」, 『河北文史資料』11, 1983, p.196.

② 北大會：北藥市(大藥市, 南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南關藥市로 불리기도 한다.)로 山貨藥材와 北貨를 경영하는 상호가 영업했다. 이곳의 경영자는 본지 상인 외에도 山西, 綏遠³⁹⁾ 등지의 행상이 있었다.

남관약시는 縣城 남관에 위치해 있는데 南城門에서 약 0.5Km 떨어져 있다. 송대 약시가 처음 흥기하였을 때 교역시장은 다만 약왕묘 앞쪽에 불과하였으나 약왕 숭배자의 증가와 약재 교역이 점차 활발해짐에 따라 약시 또한 계속해서 확장되었다. 명·청대에 이르러 약시는 약왕묘를 중심으로 4방으로 확대되어 대약시와 소약시의 전문 약재교역시장이 형성되었다.

대약시의 4방에는 모두 약재 상호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가운데에 약 2,500m²에 달하는 교역 장소가 마련되었다. 소약시는 약왕묘 북쪽 대약시 남쪽에 위치하여 소수의 거민 주택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본지와 외지 약재상점이었다. 康熙年間(1662-1722)에 이르러 약시의 범위가 확대되어 東大街 일대에까지 이르렀다. 乾隆 이후 13방 5대회와 安客堂이 형성되면서 남관약시는 전국에서도 저명한 중약재 집산지가 되었다. 清末民初 藥市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淸 光緒 『祁州鄉土志』에 “남관약시는 직예성에서 규모가 가장 컸으니 동으로는 遼東·沈陽, 서로는 四川·陝西, 남으로 雲南·貴州, 북으로 장성 밖에서 교역하러 오니 화물이 운집하였다.”⁴⁰⁾고 한 것을 통해 이곳이 기주약시에서도 교역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장소임을 알 수 있다.

③ 皮貨估衣會：가죽이나 모직제품 또는 估衣(현 옷) 등을 거래한다. 경영자는 서북 황토고원 및 내지 각 성의 피화상이거나 北京, 天津, 保定 등지에서 온 고의상들이다.

④ 雜貨會：각종 山·乾·鮮·海 및 雜貨를 판매하는 상호 및 노점상으로 이들은 대부분이 본지인이거나 북경, 천진, 보정 등지의 상인이다.

⑤ 銀錢號會：大小 錢庄·銀號가 포함되며, 많을 때는 100여가에 달했는데, 경영자는 대부분이 山西省 太谷, 榆次 출신 사람들이다. 그들은 풍부한 자본력과 숙련된 경영으로 약시의 금융업을 장악하였다. 이들 銀號 중 규모가 비교적 큰 것으로는 30餘家が 있었는데 평균 자본 규모가 20-30萬元에 달했다. 소규모의 은호 또한 수 십가가 있었는데 이들의 자본 규모는 대략 4-5萬元이었다. 銀錢號會 중 비교적 저명한 것으로는 慶昌號, 寶昌號, 復盛公, 復亨公 등이 있었다.

이상 ‘五大會’의 주요 구성원은 좌상, 행상, 소상인으로 구분되는데, ‘7·7사변’ 직전의 경우 좌상이 856호, 행상이 247호, 노점상이 309호였다.⁴¹⁾ 이들은 상호간에 어떤 구속이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영업했으며, 다만 藥王廟를 수리할 경우에 한해 통일적으로 활동하였다.

V. 결론

본고는 淸代 중국의 대표적인 專業藥市라 할 수 있는 祁州藥市에서 활동했던 약상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검토함으로써 전근대 중국의 약시와 상방문화의 일면을 고찰하였다.

淸代 祁州藥市에서 활동한 약상들은 동향사람을 중심으로 會館 혹은 ‘商幫’을 결성하여 활동함으로써 강한 지역적 유대를 형성하였다. 지역을 매개로 한 연고주의가 강한 중국 사회에서 지역 상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례는 염업 등 다른 업종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祁州는 중국의 전업약시 중에서 幫의 성립이 가장 일찍 이루어진 곳으로 이후 다른 지역 약시에서의 방의 결성과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河南의 禹州藥市에서도 방이 결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지역상방의 상황은 다르지만 기주에서와 마찬가지로 ‘13幫’의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祁州는 중국 대륙의 중부에 위치한 지역적 특색으로 인해 동북의 ‘關東幫’부터 서남의 ‘川幫’, ‘廣幫’까지 상업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중국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한

39) 綏遠은 민국시기 塞北 4省(熱河省, 察哈而省, 綏遠省, 寧夏省) 가운데 하나이다. 성도는 綏(현재의 呼和浩特市)이며, 현재의 하북성 및 북경 3환 이외 지역이 포함된다.

40) 淸 光緒 『祁州鄉土志』: “南關藥市獨甲直省, 東購遼沈, 西接川陝, 南交雲貴, 北來塞外, 雲屯物集”(楊二蘭, 「祁州藥市的歷史考察」, 蘇州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p.20, 재인용.)

41) 楊二蘭, 「祁州藥市的歷史考察」, 蘇州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p.20,

것으로 볼 수 있다. ‘13幫’이 기주약시에서 가진 영향력은 그들이 전체 교역량의 약 60%를 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祁州는 하북평원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수로를 통해 대운하와 연결되는 지리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상인들이 운집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상인들의 활동양상을 살펴보면 그들은 대체로 원거주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재를 가지고 와서 판매하고, 본지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귀중한 약재를 구입하여 돌아가기도 했다. 또는 기주를 중심으로 각지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약제조달과 운송 판매에 종사했다. 물론 이들 각 지역 상인들이 기주 지역에 한정해서 상업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으며, 禹州나 百泉 등 주변의 다른 약재 시장에서도 幫을 형성하여 활동하였다.

祁州藥市는 경영형태상에 있어서 천막을 치고 경영에 임했던 拆貨棚을 비롯해 약재를 포제·가공해 판매하는 속약행과 중성약점, 그리고 약재 산지에서 구매하여 운반 판매하는 상인과 도·소매상 등 다양한 유형을 지닌 상인들이 활동했던 공간이기도 했다. 이 점은 기주약시에서 활동했던 상인들의 유형이 그만큼 다양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기주약시는 약재교역이 주된 산업이었지만 그와 관련된 다른 업종의 상인들도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니 ‘五大會’의 번성은 이를 반증한다. 이들은 특히 ‘藥王廟’를 수리할 때는 약상들과 보조를 같이함으로써 상호 유대를 강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전업약시가 단순히 약업에 종사하는 상인들만의 공간이 아닌 그를 보조해주는 다른 업종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13방’의 일원인 關東幫 중에는 조선 상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다룬 기주와 하남의 또 다른 약시인 우주 등지를 중심으로 조선의 특산품인 인삼을 매개로 한중간에 약재교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중국 전업약시를 중심으로 한 한중간 약재무역의 구체적인 실상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2년도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헌장의적 해석을 통한 미래지식보감 구축(과제번호: K12110)’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참고문헌

1. 이민호, 「明中期 民間 醫藥業의 成長과 ‘棄儒爲醫」, 『중국사 연구』 55, 2008
2. 孫健 主編, 『北京古代經濟史』, 北京燕山出版社, 1996
3. 唐廷猷, 『中國藥業史』,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3
4. 王默, 尹忠華, 「漢正街的“藥幫”與藥王廟」, 『武漢文史資料』 2007-7
5. 張瑞賢, 「中國古代醫藥諸神(7)-皮場大王」, 『光明中醫雜誌』, 1994-1
6. 吳岩, 「安國藥王文化與藥市」, 『光彩』 1996-3
7. (清)宋蔭桐 纂修, 『安國縣新志稿(一)』(清光緒32年手抄本, 民國年間補抄稿本), 成文出版社
8. 郭應響, 『(崇禎)祁州志』
9. 이민호, 안상우, 「明·清代 祁州藥市の 成長과 ‘藥王廟」, 『대한본초학회지』 24(4), 2009
10. 楊二蘭, 「祁州藥市の歷史考察」, 蘇州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11. 趙英, 李文策, 朱孟申 主編, 『安國中醫藥志』, 香港銀河出版社, 2002
12. 王婧, 「清代中後期懷慶藥商的地域經營」, 『株州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12(6), 2007
13. 程峰, 「明清時期懷商崛起的原因」, 『南都學壇』(人文社會科學學報) 27(4), 2007
14. 崔來廷, 「略論明清時期的河南懷慶商人及貿易網絡」, 『河南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7(3), 2006
15. 安秋生, 「武安藥商散記」, 『長城』2007年 第3期
16. 程峰, 楊玉東, 「懷慶商幫與武安商幫的商幫意識」, 『焦作大學學報』 2011年 第2期
17. 武立新, 「武安藥商文化在現代醫藥企業經營中的利用探索」, 『商業文化』 2010年 第7期

18. 喬冀民, 「安國縣藥材集散市場歷史情況的調查研究」, 『中藥通報』 1958年 第6期
19. 이민호, 「清代 ‘懷慶藥商’의 상업활동과 네트워크 형성 - ‘協盛全’과 ‘杜盛興’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35, 2011
20. 이민호, 「明·清代 樟樹藥幫의 形成과 그 特徵」,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15(2), 2009
21. 曹萍外, 「江西建昌藥幫의 歷史考證」, 『江西中醫學院學報』 14(2), 2002
22. 龔千峰, 祝婧, 周道根, 「樟樹藥幫의 歷史與特色」, 『江西中醫學院學報』19(4), 2007
23. 陳新謙, 「阿片戰爭以前的藥店和藥市」, 『藥學通報』 1987-3
24. 安冠英, 韓淑芳, 潘惜尘, 『近代中國工商經濟叢書-中華百年老藥鋪』, 中國文史出版社, 1993
25. 安慶昌, 「安客堂和十三幫五大會」, 『安國文史資料』 1988
26. 劉華圃, 許子素, 「祁州廟會-馳名全國的藥材集散地」, 『河北文史資料』 11, 1983
27. 劉崇生, 「平遙縣中藥材經營史話」, 『山西文史』 1995年 第2期
28. 王興亞, 「清代懷慶商人的經營之道」, 『石家莊學院學報』 2006年 第1期
29. 劉岩, 「安國藥材產業發展的經濟文化基礎」, 『地理研究』 17(3), 1998
30. 山根幸夫, 『明清華北定期市の研究』, 汲古書院, 1995
31. 車雲, (民國)『禹縣志』
32. 權丙卓, 『正統大邱藥令市』, 聖岩出版社, 1992
33. 朴敬庸, 「傳統醫藥의 ‘業權’ 樣相과 物質傳承-大邱藥令市를 中心으로」, 忠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人文學研究』, 2007
34. 申東源, 「1910年代 日帝의 保健醫療政策-韓醫藥政策을 中心으로」, 『韓國文化』30, 2002
35. 藥令市復活推進委員會, 『大邱藥令市』, 慶北印刷所, 1984
36.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自家出版, 1963